

“광주 역사 흐르는 양림동 매력적인 공간이죠”

예향서 살아보니



4 줌스컴퍼니 대표 이한호



양림동의 시간은 왠지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다. 선교사들이 머물렀던 낡은 사택, 작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골목 골목들, 울창한 나무가 반기는 사직공원까지.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는 약간 비껴서 있는 공간 같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해온 이한호(35) 줌스컴퍼니 대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양림동과 사랑에 빠졌다. 지난해 광주 지사를 낸 그는 양림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다.

2006년 설립된 줌스컴퍼니(Juice come funny)는 잘 나가는 문화 마케팅·컨설팅 기업이다. 세종벨트 전략 컨설팅, 경기이전 도자기 브랜드 마케팅, 외교부 중남미문화축제 홍보 마케팅 등 전국에서 수많은 사업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광주와 첫 사업을 진행한 건 지난 2006년 광주비엔날레 VIP 파티행사였다. 이후 광주비엔날레, 광주김치문화축제, 무등산 주상절리대 지역문화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으로 광주와 인연을 이어왔다.

1년이면 10여차례 이상 광주를 찾았던 그는 ‘양림동’에 주목하고 아예 이사를 했다. 처음에는 지사를 내고 혼자 내려와 머물렀지만, 팀장으로 일하는 서울 토박이 아내 역시 여러 차례 양림동을 다녀간 후 매력에 빠져 결단을 내렸다.

“처음에 광주에 왔을 때 광주의 과거, 특히 1980년대 이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의외였다. 5·18이 광주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5·18’이라는 단일한 창으로 보는 게 조금 아쉽다. 1920년대~30년대 광주 이야기에 삶이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고스란히 안고 있



지난해부터 광주살이를 시작한 줌스컴퍼니 이한호 대표는 양림동을 광주 최고의 매력적인 공간으로 꼽았다. 줌스컴퍼니 사무실 김현승 시인 사진 옆에서 포즈를 취한 이한호 대표. (줌스컴퍼니 제공)

2006년 비엔날레 행사 기획하며 광주와 인연 지역 문화기획자 모임 ‘105-28 청춘 파티’ 진행 100년 세월의 골목길·예술인들 브랜드화 목표

는 양림동은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다. 축적된 시간이 사람에게 건네는 이야기가 정말 많다.”

김현승, 정율성, 배동신, 선교사들 등 예술인들과 양림동의 골목길은 그가 꼭 진행하고 싶은 양림동 프로젝트의 핵심요소들이다.

그가 광주로 터전을 옮긴 건 물론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면 분명 민간 파트너가 필요하게 될 거고, 광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양림동에 주목하게 됐다. 광주의 현재, 과거, 미래가 모두 담긴 공간이라는 생각에서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물론 돈을 벌려고 일을 진행하는 게 맞다(웃음). 광주는 문화 자원이 풍부한 도시다. 문화가 꽃피 수 있는 모양이 참 좋는데 내부에서 그 진가를 발견하지 못

하는 거 같다. 다양한 문화자원을 잘 엮어서 브랜드화 하고 싶다. 양림동에 흐르는 100년의 시간을 털어내면서 옥과 석을 구별해야 한다. 근대문화의 낭만성을 좇아 비주류에만 치중하는 건 의미가 없다. 낭만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합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존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있는 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기 때문이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를 디자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중앙대 광고홍보학과를 나온 이대표는 유명 문화기획자 안이영노씨와 ‘기분좋은 QX’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줌스 컴퍼니’는 보통 회사를 뜻하는 ‘company’라는 단어 대신 ‘comefunny’를 쓴다. ‘문화를 통해 즐거움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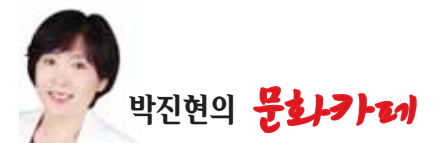
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몇달 전부터 ‘105-28 청춘 파티’를 열고 있다. 회사가 자리한 번지수에서 착안한 105-28 청춘 파티는 지역의 40대 이하 문화 기획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유로운 모임이다.

“광주에 와서 보니 훌륭한 인재들이 많더라. 개성있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하지만 이해 관계에 얽혀 스스로 볼 ‘관’을 만들지 못하더라. 최근에는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문화인력들이 광주로 유턴하고 있다. 광주 지역 문화기획자들과 타지역 기획자들이 어울려 즐기면서 공부하는 모임이다. 특별한 형식도, 멤버도 없이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이 모임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획자를 마중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

이 대표는 성공스토리만 좇는 건 의미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는 실수도 따른다. 그게 두려워 방어적인 태도로 일하는 건 원치 않는다. 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신화가 아니고 우화였으면 좋겠다’는 것, 그게 이 대표가 바라는 점이다. (끝)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툰

2년 전 여든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소설가 박완서씨는 늦깎이 문인들의 우상이었다. 지난 1970년 마흔 살의 나이에 ‘나무’(裸木)로 등단했지만 타계할 때까지 그 누구보다도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며 인생 2막을 화려하게 보냈다.

사실 박씨가 등단할 때만 해도 문학계에서는 기대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재대로 된’ 작가로 성장하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과연 후속작이 나올 수 있겠

주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6일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늘 새로운 도전을 꿈꾸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 단편영화를 하나 더 만들고 1~2년내에 장편영화를 찍겠다고 했다. 70대 중반이던 나이가 ‘걸리긴’ 하지만 ‘미스터 김’(외국 영화계에서 그를 부르는 호칭)으로 ‘되돌아가’ 화이팅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그의 ‘계획’이 성공할 지 알 수 없지만 ‘힐

힘내세요, 미스터 김!

나’는 게 이유였다. 자칫 데뷔작이 유일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박씨는 스무 살 때 겪은 분단의 비극을 기회가 되면 글로 ‘증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꿈은 ‘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나이로 문단의 우를 비롯가라도 하듯 박씨는 근 40여 년 동안 수십여 편의 베스트셀러를 쏟아냈다.

최근 김동호(77)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도 박씨처럼 ‘늦깎이 예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96년~2010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끌었던 그는 지난 3월 영화제 심사의 빛이아기를 담은 24분짜리 단편영화 ‘주리’를 제작해 영화감독으로 변신했다. 7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직접 메가폰을 잡고 주연을 맡은 안성기, 강수연과 함께 현장을 누볐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광

순의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 잔잔한 감동을 준다. 뭔가 시작하길엔 ‘오후 3시’ 같은 어중간한 나이에 도 꿈을 꾸는 건 제2, 3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요즘의 40~50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혹여 나이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미스터 김’들이 있다면 시인 정희성의 ‘태백산행’을 새겨 둘 일이다.

“눈이 내린다/ 기차 타고 태백에 가야겠다/배낭 둘러메고 나서는데/등 뒤에서 아내가 구시렁댄다/지가 열일곱 살이야 열아홉 살이야.(...) 산등성 솟아 올라가는데/칠십 고개 넘어선 노인네들이 여보 젊은이 함께 가지/앞 뒷이아기를 담은 세월이 울해 맞아 나고/선일곱이라고/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좋을 때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한다는/태백산 주목(朱木)이(--) 좋을 때다 좋을 때다 말을 받는다. (이하 생략)”

(편집부작가 겸 문화선임기자)

광주전남작가회의의 27일 푸른길서 ‘문화난장’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회장 조진태)가 문화난장 ‘불온한 주목’을 개최한다.

작가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옛 남광주역 푸른길 공원에서 문화행사를 갖는다. ‘문화과 미술, 음악이 만나서 통섭하다’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난장은 출판기념회와 음악공연, 시낭송, 노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문화난장은 개막을 알리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고시래, 고천문의 시낭송,

신남영의 노래 공연 등이 이어진다. 출판기념회를 갖는 회원들의 작품

집은 다음과 같다. ▲소설-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시-고성만 ‘햇살 바이러스’, 박석준 ‘카페, 가난한 비’, 박시영 ‘바람의 눈’, 신덕룡 ‘아름다운 도둑’, 정영주 ‘달에서 지구를 보듯’, 조대현 ‘도시인’ ▲평론-김선태 ‘진정성의 시화’, 심영의 ‘작가의 내면, 작품의 틈새’, ▲산문-김규성 ‘말’이 있다.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18년만의 재회... 반감다 ‘레옹’

광주극장, 27일 재개봉...심의 삭제 23분 복원

나탈리 포트만과 장 르노, 케리 울드만의 열연, 우유와 화분. 그리고 스틱의 음악까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영화 ‘레옹’이 18년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극장은 영화 ‘레옹’을

두차례 특별 상영한다. 27일 오후 3시 30분, 30일 화요일 7시40분.

1995년 개봉한 ‘레옹’은 당시 150만 관객을 동원하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18년만에 재개봉되는 ‘레옹’은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통해 더욱 선명

한 화면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개봉 당시 심의에 삭제됐던 23분 가량의 복원된 점이 눈길을 끈다. 레옹과 마틸다의 킬러 수업, 숨겨졌던 레옹의 과거, 그리고 미묘했던 그들의 관계를 보다 솔직하고 대담하게 그린다. 18세 이상 관람가.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